

오대벼 싹틔우기 실패 농가 현물 지원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대책 발표... 파종후 육묘 실패 농가는 종자와 상토 지원

“시간·인력 낭비 부분은 지원 어려워” 지도내용 거부 농가는 종자 농협에 반납

정부가 보급한 오대벼 볍씨 발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농민들의 민원이 속출한 가운데, 고성군농업기술센터와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은 지난달 25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로 보낸 오대벼 보급종 발아지원 대책 공문에서 “오대벼 보급종의 발아 지연으로 최아(싹을 틔우는 일)에 실패한 농가는 종자를, 파종 후 육묘 실패 농가는 종자와 상토를

현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아직까지 침종하지 않은 농가는 발아기 온도가 30~32°C에서 2~3일간 침종한 후 반드시 상온의 물로 매일 갈아주면서 3~4일간 담그는 등 침종 및 최아방법을 적극 지도해 달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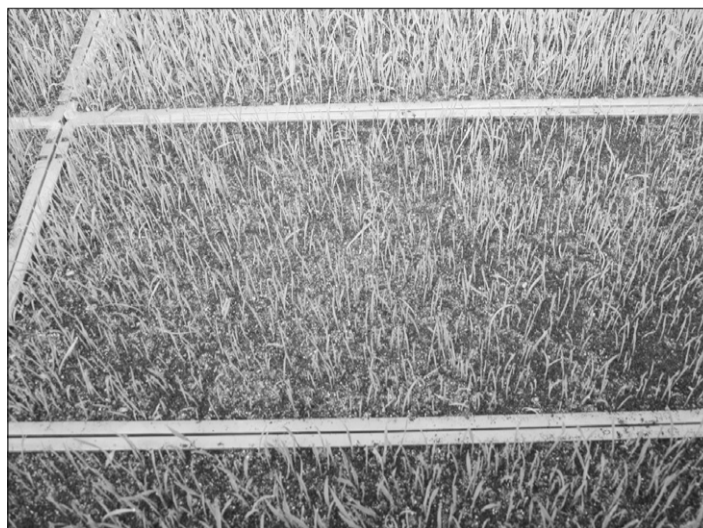
이율리 이같은 지도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농가는 보급된 종자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지역 농협에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은 그러나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이 보급한 볍씨 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농민들이 침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립종자원은 다만 “보급한 오대벼 볍씨는 시험에서 80% 이상의 발아율을 보였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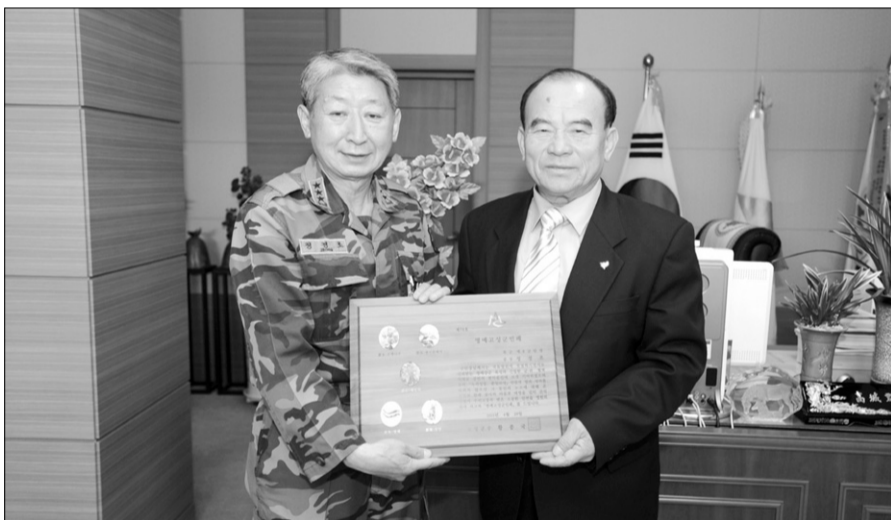
국립종자원은 또 발아지연으로 인해 농사 일정에 차질을 빚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오대벼 보급종의 발아지연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 진



고성지역의 한 농가의 오대벼 발아모습. 군데군데 발아가 되지 않은 곳이 눈에 보인다.

심으로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 인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는 우량종자만을 공급해 농업 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8군단장에 명예고성군민패 수여
8군단장(중장)에게 명예고성군민패를 수여했다. 황종국 고성군수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새로 부임한 정경조 최광호 기자

127명 이상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은 오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6주간 5개 읍면사무소에서 이장단 127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은 지역사회 만성질환자관리 멘토를 양성하고 고성군민의 전반적인 건강관리 실천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을지킴이인 이장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고혈압, 당뇨관리의 필요성 및 응급처치와 변경된 심폐소생술 이론강의, 심폐소생술 실습강의를 건강관리팀 관계자를 비롯해 전문

강사 4명의 강의로 진행된다. 또 이동건강클리닉을 실시해 대상자 발견을 위한 혈압·혈당체크 및 개별상담을 병행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소책자 등을 배부해 홍보한다.

한편 건강관리팀은 우울증 및 정신분열, 알콜중독, 치매 등 지역내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연중 주회 무료로 토피어리, 비즈, 압화, 클레이아트, 운동등을 실시하고 있다. <자살 및 정신건강상담 문의 :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 680-3961> 박승근 기자

4월 11일 OPEN

개 장수영양탕 업

메뉴 영양탕 전골 무침 추어탕 ※닭도리탕·황태전골은 예약하시면 가능합니다

저희 업소는 국내산 고기·쌀·김치만 사용합니다



20여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제가 고성군청 앞 골목길 근처에서 '장수영양탕'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푸짐하게 내놓겠습니다.

대표 우 옥 기
☎681-6010
※매주 주일(일요일)은 쉽니다

